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그리고 평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 5:9)

동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모든 사람들 처럼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도 답을 찾고 있다. 어쩌면 전쟁과 폭력의 비극으로 삶에 영향을 받았었을 프란치스코 성인과 클라라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215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5번째 십자군을 유발했던 4차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프란치스코도 그 공의회에 참석했을 것이고 그 십자군 선포를 들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성지로 가려는 두 번의 시도를 실패한 후, 1219년에 Holy Land 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십자군의 전사로 그곳에 가 있었다. 그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다; 그는 색다른 계획이 있었다.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228년에 토마스 첼라노가 교황의 명을 받아 집필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토마스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의 열렬하고도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편치 않았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지 13년이 되는 해 (1219)에 동료 하나를 데리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그곳에는 격렬한 싸움이 일곤 하던 때였다. 그래도 그는 사라센의 회교도의 군주 앞에 두려움 없이 나타났다.

회교도의 군주와의 만남에 대해 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토마스는 군주가 프란치스코의 증언, 태도, 그리고 부에 대한 경멸에 깊이 감동을 하였고, 군주는 또한 프란치스코에는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순교에 대한 염원을 주께서 들어 주지 않으셨으나, 그를 위해서 오상이란 은총의 특권을 마련해 놓고 계셨다고도 말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신학자이며 후에 수도회 총봉사자였던 성 보나벤투라도 역시 1263년에 성 프란치스코 생의 전기를 썼다. 보나벤투라의 기록은 토마스의 기록과 거의 똑같지만, 회교도의 군주의 만남에서 군주의 제사장들에게 프란치스코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고 했던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쓰여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리하여 어느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거룩한가를 당신[술탄]에게 보여줄 것이오."

프란치스코의 순교에 대한 갈망이 지금 시대에는 고루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란 역사상 실제 인물과 일치하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어 하였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순교하기를 갈망하였다.

프란치스코가 회개의 삶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와 흡사하게 생긴 초라한 녀마옷을 손수 마련했을 때, 갑옷 위에 십자가가 그려진 겹옷을 입었던 십자군의 전사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닌 자”가 되었다. 비록 무기를 내려놓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투사였다. 영적으로 싸우는 십자군의 전사였다. 이제 그의 말씀과 십자가가 그의 무기였고, 그의 녀마옷이 갑옷이었다.

어느 글에서도 프란치스코가 십자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듯이, 십자군 운동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더구나, 그의 회개 전에 전쟁터에서의 경험과 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의 삶이 어느 형태의 폭력도 거절했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말해주고 있다. 그는 완전히 비폭력자가 되었던 것이다.

회교도 군주가 개종하지 않았고, 프란치스코가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이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토마스에 의하면, 군주가 프란치스코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했고, “최고의 예우”를 했으며, 많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에게 주었던 그 두 개의 선물 -상아 뿔나팔과 회교도인이 기도할 때 쓰는 돛자리는 지금까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보관되어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후에 회교도의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 장소를 프란치스코와 그의 수도회로 돌려받게 되었다. 십자군들이 탈환하기 위해 진출했던 첫 장소였던 이 성지를, 프란치스코로 인해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성지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에게 베푼 엄청난 호의였다.

아씨시의 성녀 클라라 역시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에 살았다. 클라라가 8 세였던 1199 년에 큰 폭동이 있을 후, 아씨시의 다른 귀족들과 함께 페루지아로 망명을 갔었다. 클라라의 아버지, 삼촌들과 사촌들은 모두 기사였었다. 그들도 전쟁터에서의 많은 경험을 했었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검과 검집을 허리에 찼었을 것이다. 클라라가 자라던 성안에는 창과 방패 그리고 전투용 도끼와 같은 무기들이 즐비했었을 것이다.

클라라는 18 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그 부유한 청년처럼, 클라라 역시 주님께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였다. (마태오 19:16-30, 마르코 10: 17-31, 루카 18:18-30)

클라라는 사는 동안 내내, 십자가와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묵상하였다. 그녀 역시 프란치스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이 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기를 갈망하였다.

클라라는 병석에서 그녀의 삶에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 때 사라센 군인들이 아씨시에 있는 성 다미아노 성당을 침범하였다.

1240년 오전 9시쯤, 그들이 별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수녀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클라라는 수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한 신뢰심을 가지라고 말하였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수녀들에게 “그들이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오거든 나를 그들 앞에 대려다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클라라는 상아와 금은 세공의 성함에 모셔져 있는 지존하온 성체를 모셔오라고 수사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 날 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클라라는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성체 대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라센들이 문을 무수고, 수도원 경내까지 들어 왔을 때,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 베일을 쓴 신비스러운 여인에 의해 그들은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녀는 침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클라라는 무기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들보다도 더 강하고 무한한 힘을 갖고 있었다.

성녀 클라라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라는 가장 도전적이고 긴급하고 필수적인 복음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사라센들은 그만 어리둥절하여 다 도망을 갔다. 그날 폭력을 없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는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반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였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예수를 방어하려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마태오 26:52)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 18:36)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은 이 세상 저 너머의 천상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가톨릭교회는 정당 방위(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3-2267)와 어떤 상황에서는 정당한 전쟁(가톨릭교회 교리서 2307-2317)을 허락하고 있지만,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했던 방식이 전쟁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Bret Thoman 의 책 [A Knight and a Lady: A Journey into the Spirituality of Saints Francis and Clare](#) 에서, 저자는 평화, 평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다른 프란치스코의 기본 영성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